

design portfolio

dawon jung

+82 10 5131 6754

jdeliefj@gmail.com

@fol.da_

무쓸모의 쓸모를 탐구하고, 부조화의 조화를 발굴해내는 디자이너 정다원입니다.



정다원 Jung Dawon

2002.10.29

📞 +82 10 5131 6754

✉️ jdeliefj@gmail.com

🐙 [@fol.da_](https://fol.da_)

Bē <https://www.behance.net/7a515899>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입학

2022

Blue Awards 공모전 우수상 및 입선

강원디자인전람회 입선

성수동 소리숲 카페 <우린 젊다: 동화> 전시 포스터 디자인
데상트 코리아 신발 프로모션 2D 모션그래픽 참여

2023

교내 시각디자인 전공학회 inacoms 회장

제1회 교내 학회 연합전시 <안계전: 공백> 운영위원장

<안계전: 공백> 전시 디자인 컨셉 구축 및 모션포스터 디자인

2024

디자인 소모임 무쓸모동산 결성

대학생 창업팀 MARTi 콘텐츠 디자이너

대학생 독립영화 상영 기획 단체 GUJiff 디자인팀 팀원

우아한형제들 크리에이티브부문 디자인실 입사 (1년 계약직)

제 3회 노원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작 및 출품작 전시 홍보물 디자인

illustrator



photoshop



indesign



after effect



premiere pro



figma



html/css



touch designer



2025

ASIA DESIGN PRIZE 커뮤니케이션 부문 파이널리스트

대학생 독립영화 상영 기획 단체 GUJiff 부대표

2026

(예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졸업

index

01	지우개활자 워크숍	p.04
02	lost signal	p.12
03	GUJiff	p.18
04	자유낙하운동	p.25
05	Butter Flight	p.29
06	WIFF	p.34
07	무쓸모도감	p.37

01

지우개활자 워크숍

2025.01.
~ 2025.02.

워크숍 기획
워크숍 진행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p.04



무슬모동산 프로젝트 09 : 지우개활자 만들기 워크숍

2024년 2월, '쓸모없어도 쓸모 있다'라는 슬로건 하에 실용성 없는 무언가를 자유롭게 만드는 학생 디자인 팀 무슬모동산을 결성했다. 지우개활자 워크숍은 팀원 4명이 내부적으로 활동하던 무슬모동산에서 처음으로 활동 신청을 받아 객원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한 외부 워크숍이다.

팀원들이 객원 참가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느낌보다는 다함께 합심하여 특별하고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을 최대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다.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장난치듯 다룰 수 있는 지우개와 도장을 소재로 활용했다. 한글 자모음과 특수기호 몇 가지를 선정한 후, 뽑기를 통해 각자 맡은 글자를 직접 그리고 깎아내 한데 모았다. 숙련되지 않은 솜씨로 빠뚤빼뚤 뒤죽박죽 엉킨 활자가 완성되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든 활자를 종이에 찍어보며, 각자 그린 글자들이 어떻게 조화되고 어떻게 하나의 작업물이 되는지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팀원과 객원 참가자들 모두 전에 경험해본 적 없던 형식이라 너무나도 즐겁게 작업했다는 호평을 내렸던 워크숍이다.

워크숍 기획 | 정다원 방지현 전희주 정연수

워크숍 진행 | 정다원

워크숍 진행 보조 | 방지현 전희주 정연수

참여 | 정다원 양성재 이규민 이참솔 방지현 송유정 전희주 정연수 하예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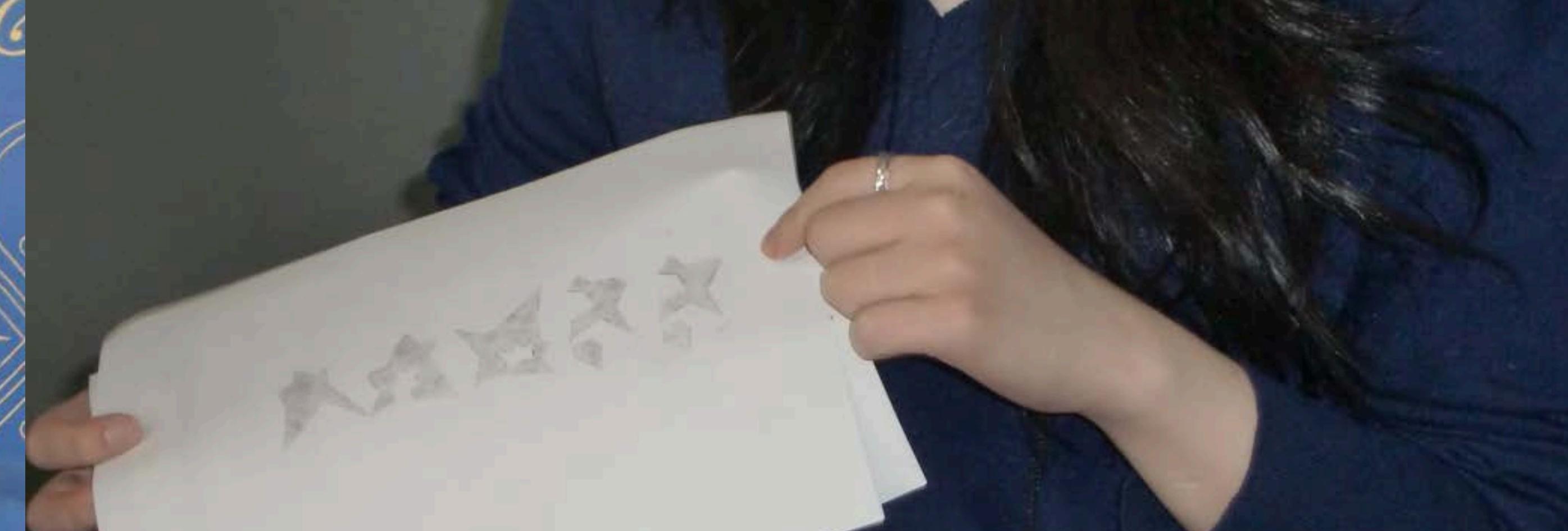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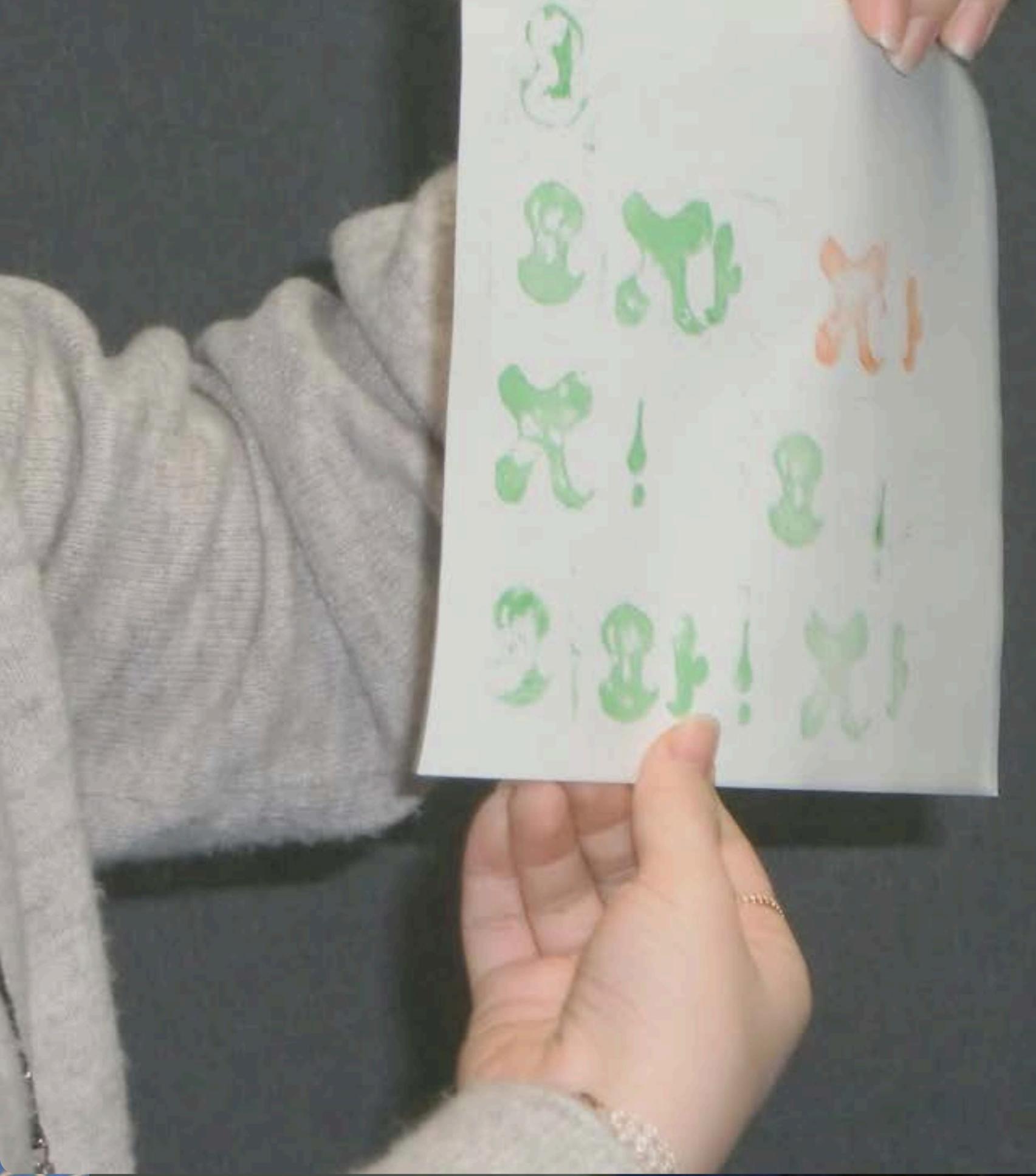
인터랙티브 웹 디자인 | 정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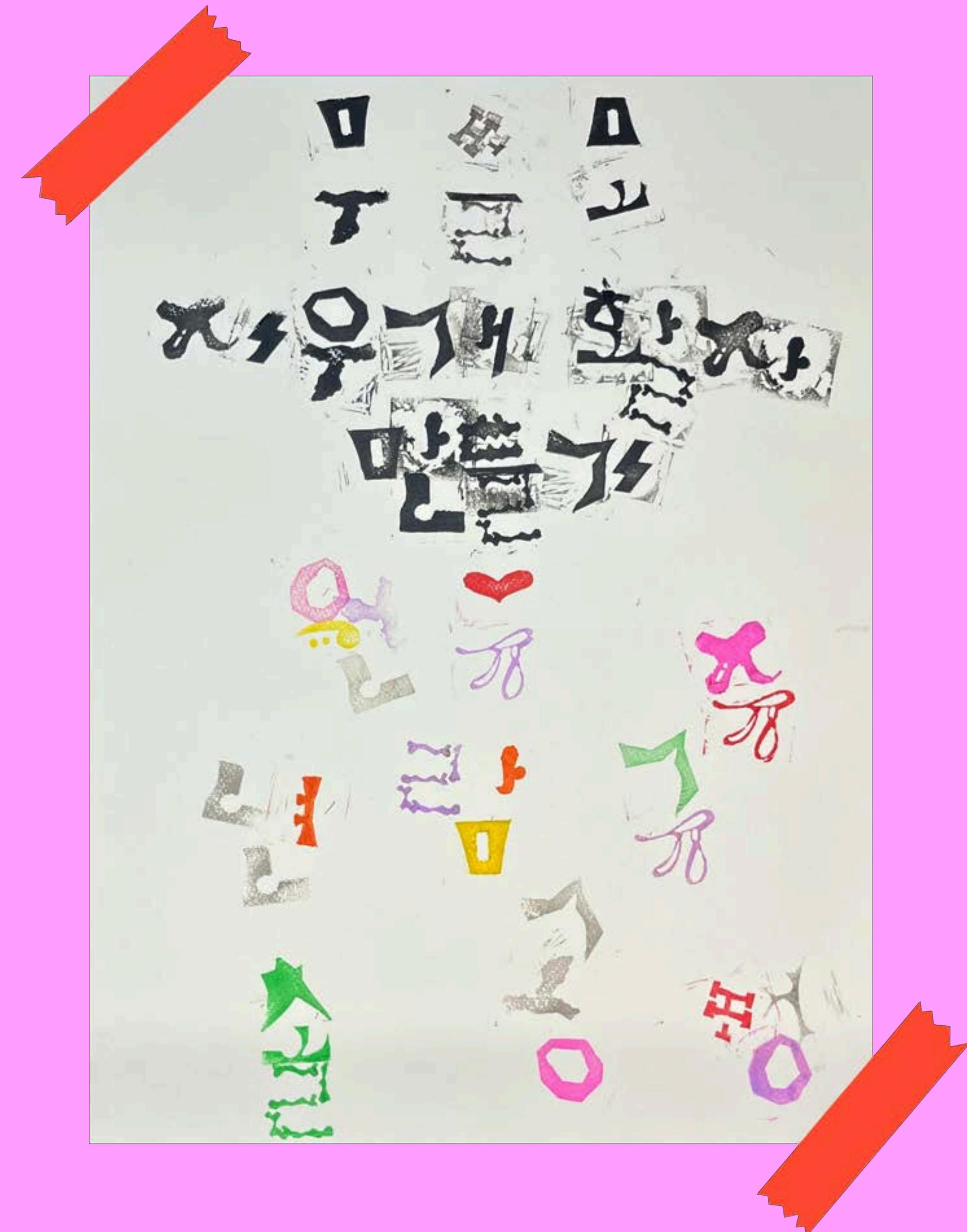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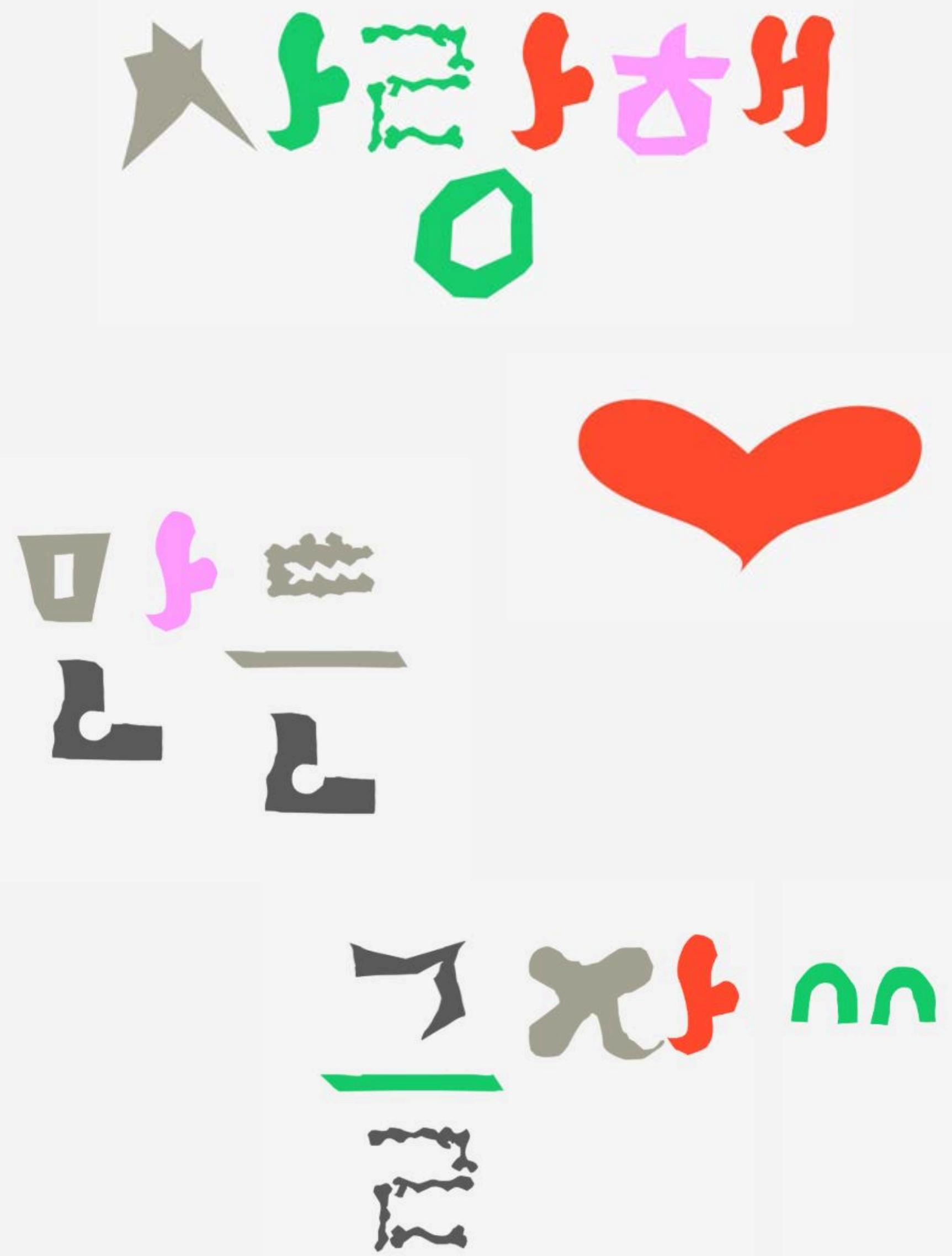








[CLICK TO VISIT THE WEBSITE!](#)



02

lost signal

2024.07.
~ 202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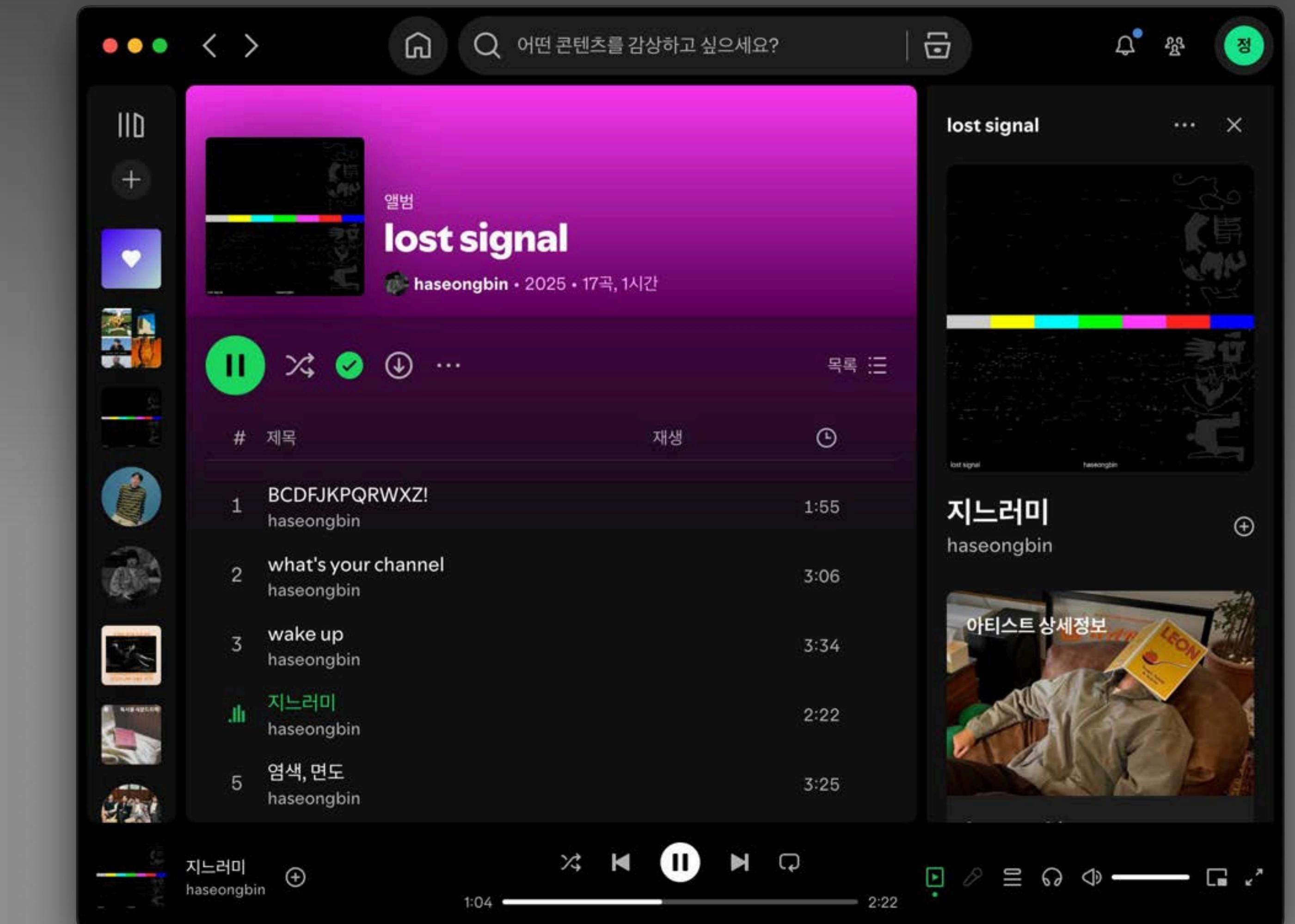
앨범 비주얼
& 패키지 디자인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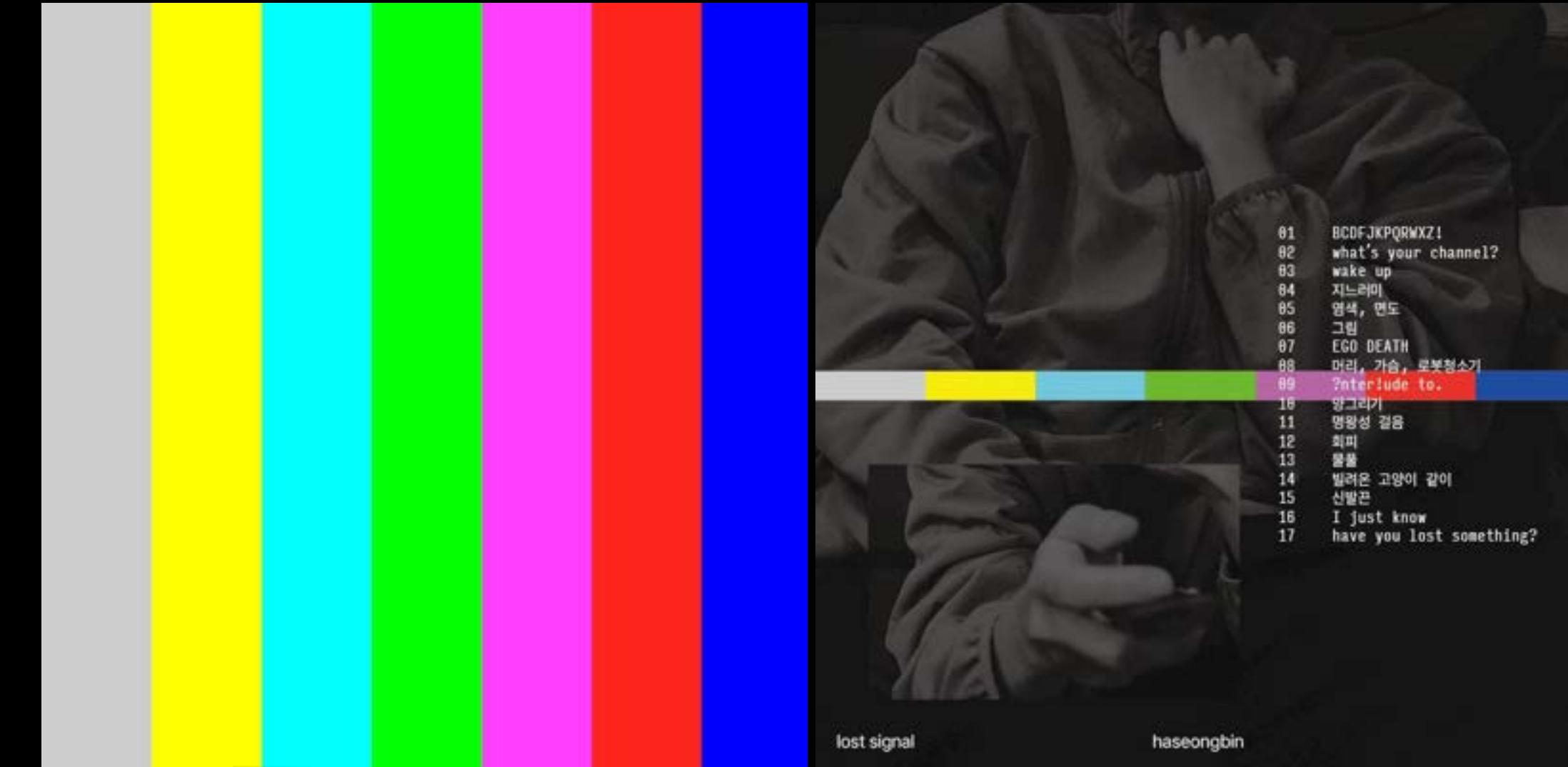
하성빈 1집 <lost signal> 앨범 아이덴티티 디자인

뮤지션 하성빈의 1집 <lost signal> 앨범 전반을 디자인했다.
수많은 종류의 상실을 채널의 신호 오류에 비유한 앨범의
콘셉트를 시각화하기 위해 TV 채널의 시각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트랙별로 총 17종의 그래픽 이미지를 제작하여
청자가 청각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앨범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고, 촬영한 이미지를 직접 가위로 잘라내
무언가를 '잃어버린' 앨범의 콘셉트를 드러냈다.
모든 작업 과정과 제작물은 음반 발매 전 이태원 포스트팝에서
진행된 리스닝파티에 음악과 함께 전시되어 복합적인
콘텐츠로서의 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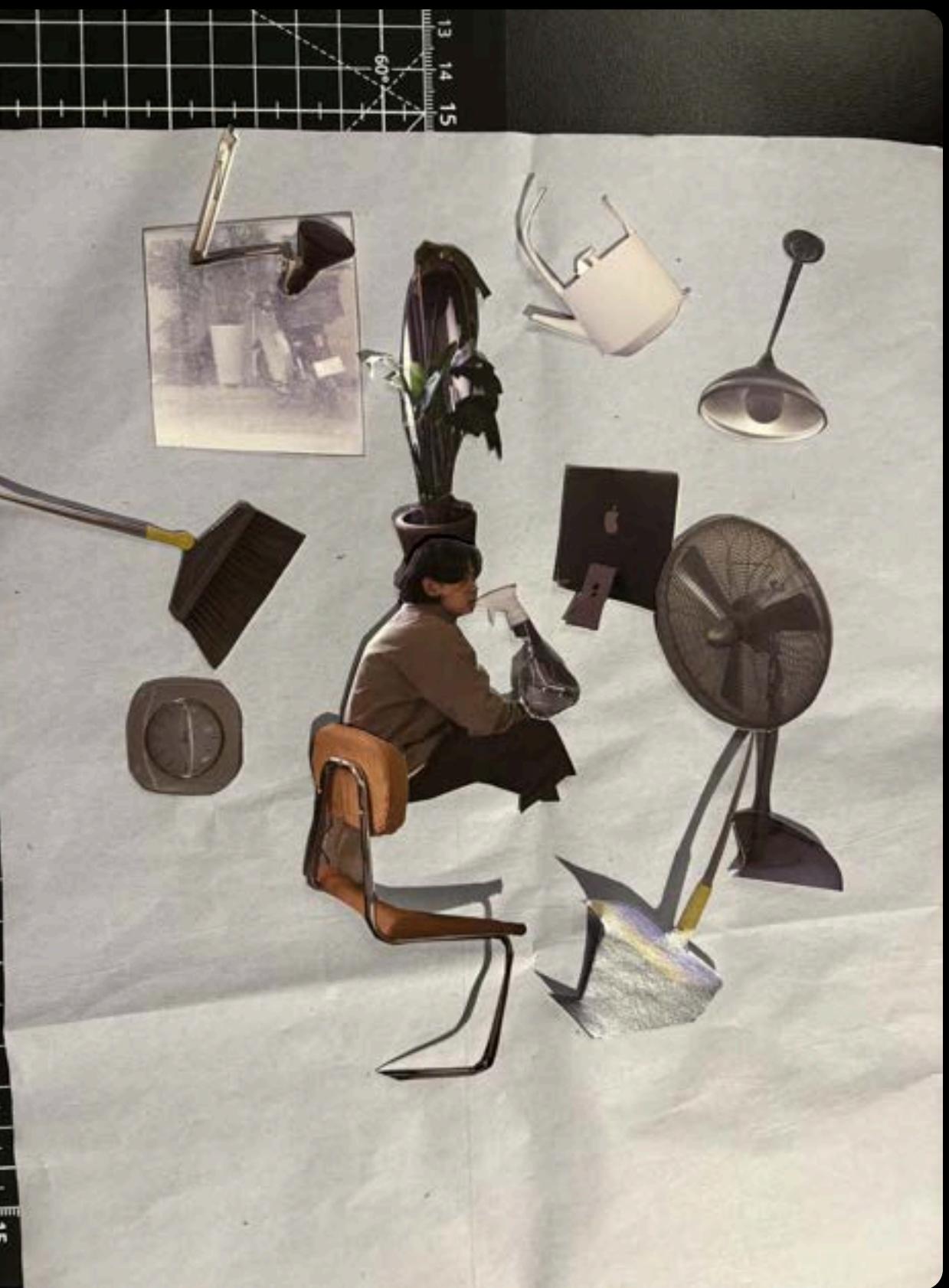


음악 | 하성빈
앨범 비주얼 디자인 | 정다원 이예인
앨범 패키지 디자인 | 정다원
사진 촬영 | 방지현









03

GUJIff

2024.03.
~ 2024.06.

브랜드 기획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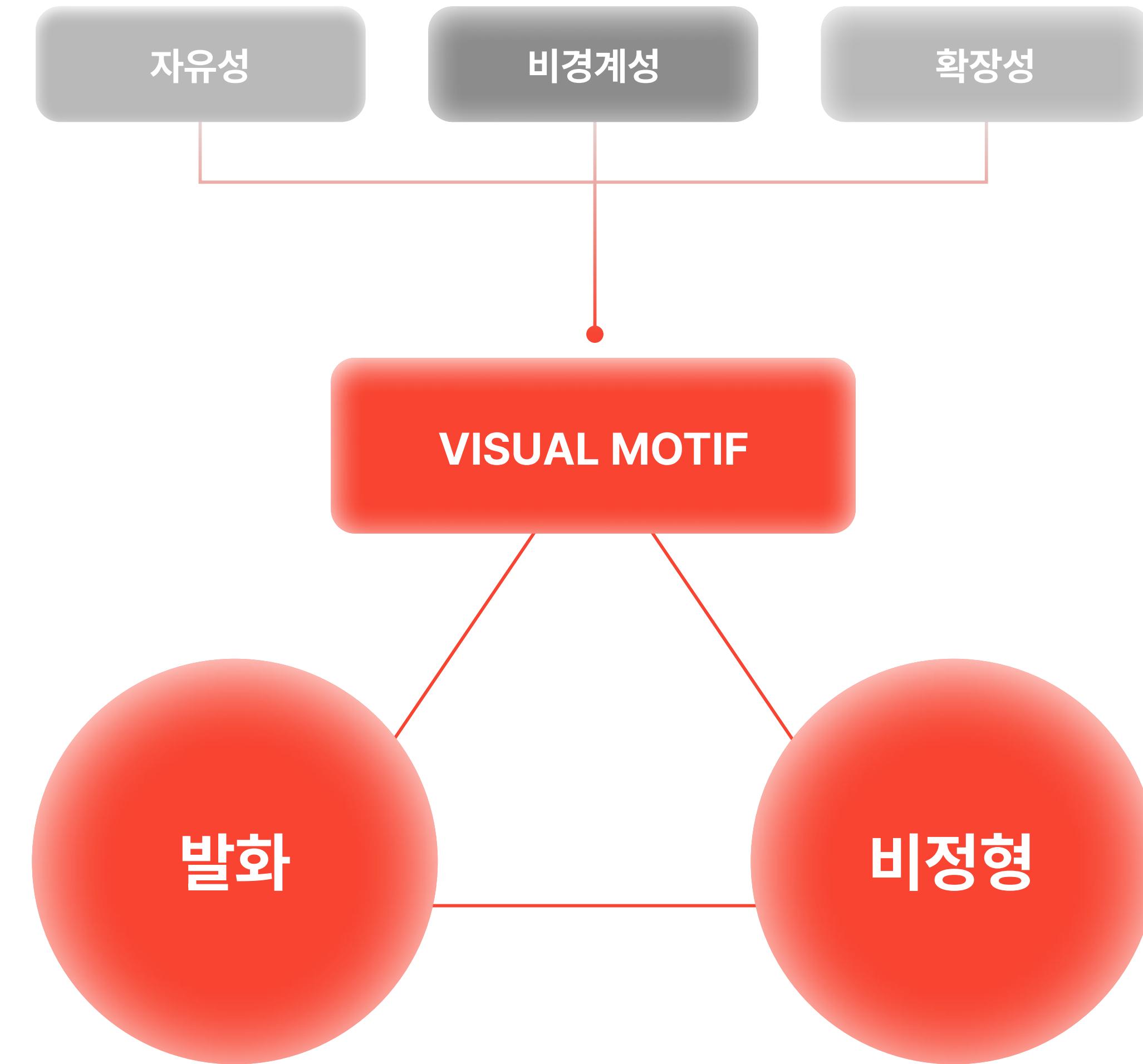
p.18

도립행화에
다가가는
우리만의
방법



대학생 독립영화 상영 기획 단체 GUJiff 리브랜딩

독립영화를 통해 아티스트와 관객 사이를 채우는 대학생 독립영화
상영 기획 단체 GUJiff의 리브랜딩을 맡았다.
브랜딩 TF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밸류, 비전, 슬로건 등을
재정립하고, 그를 바탕으로 도출한 디자인 키워드 및 무드보드를
통해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제작했다.
브랜드마크를 비롯한 각종 비주얼 가이드를 설립하고 브랜드
매뉴얼을 제작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매뉴얼은 내부적으로
공유되며 GUJiff의 팀원들이 GUJiff의 아이덴티티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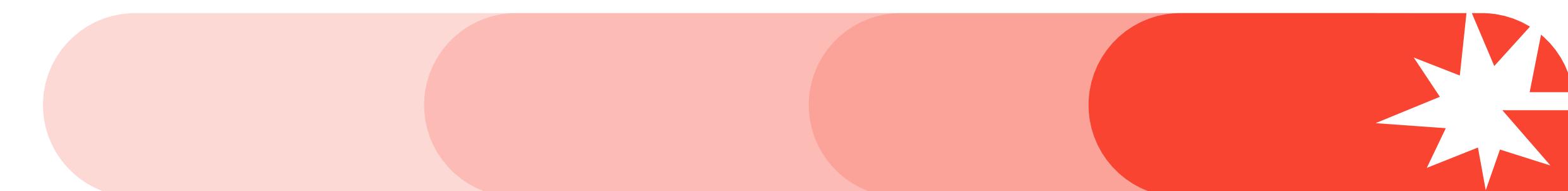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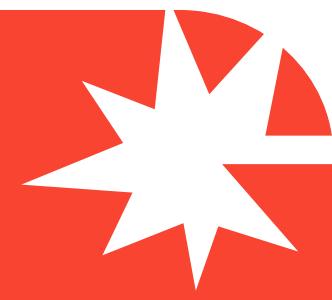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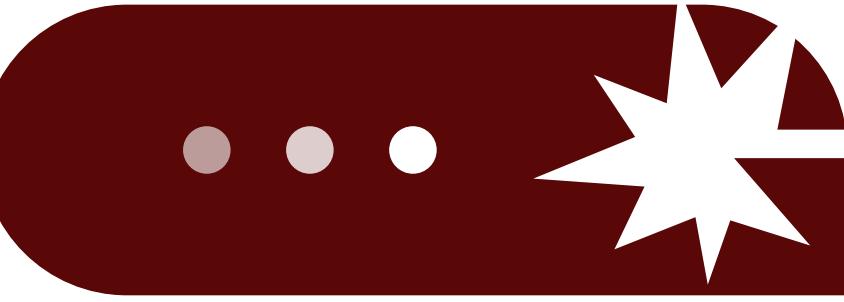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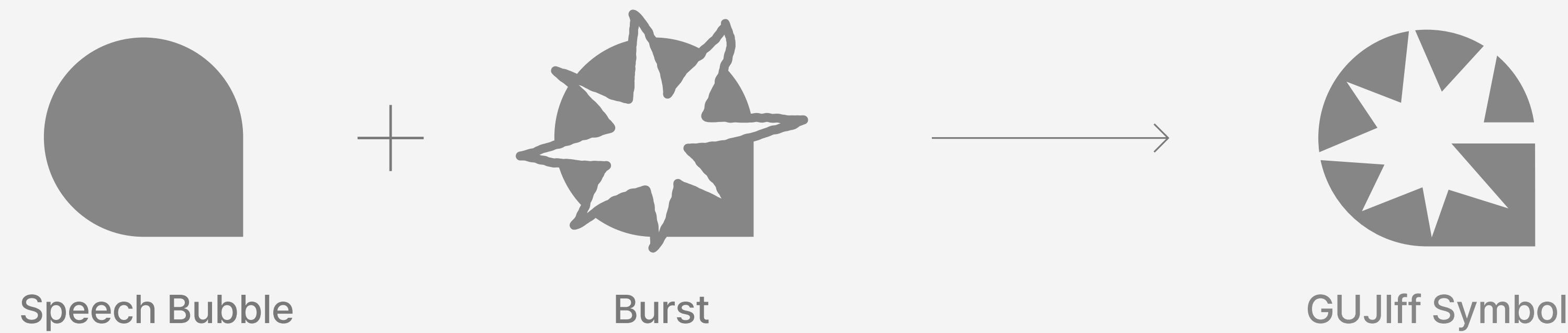
구지프와 관객, 아티스트, 세 주체가 만들어낼 독립영화 향유의 모습을
불이 타오르며 점점 커져가는 이미지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메시지를 나누며(發話), 독립영화를 확장하고 밝힙니다(發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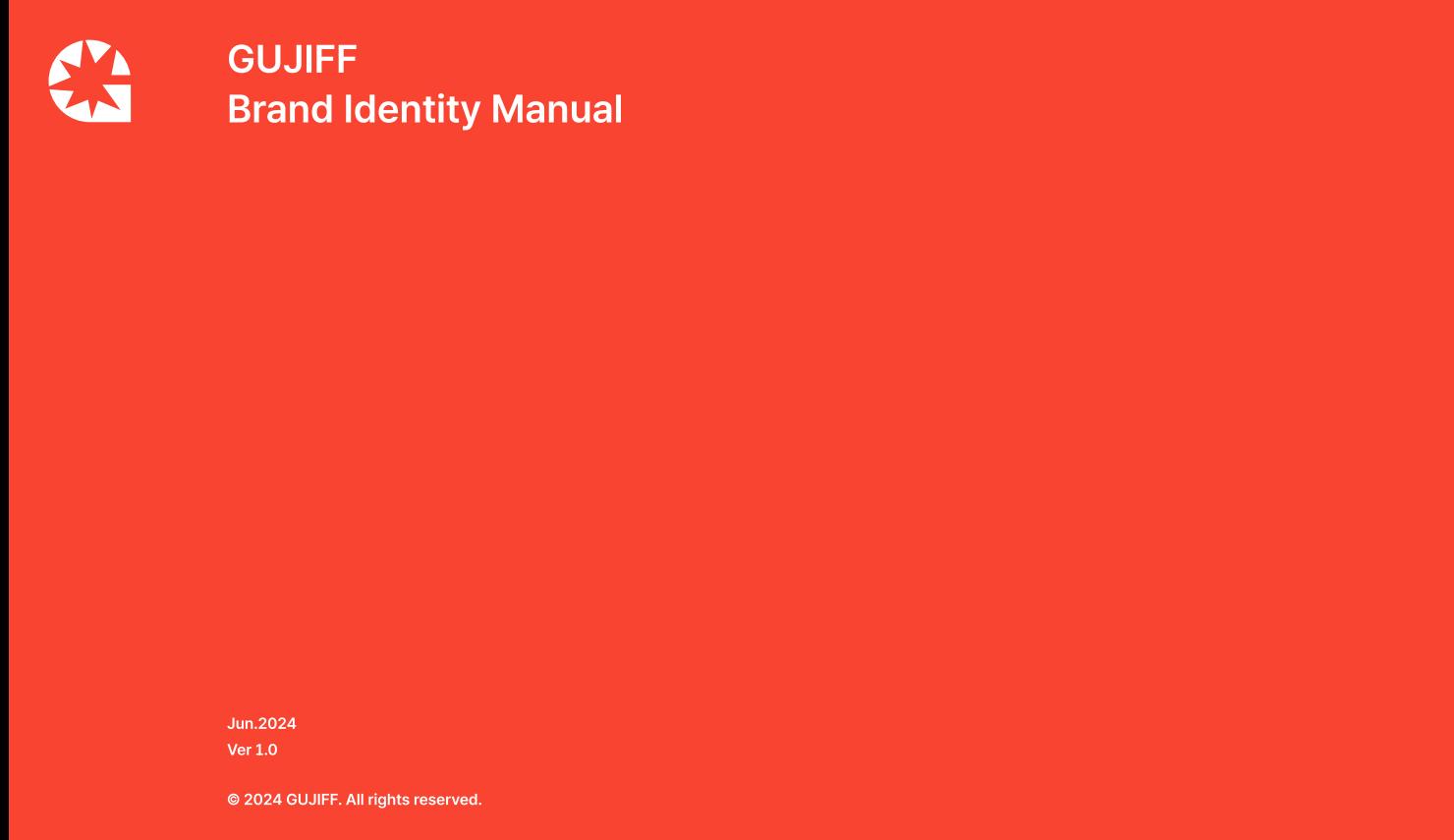
독립영화에 다가가는 우리만의 방법





Logo Vari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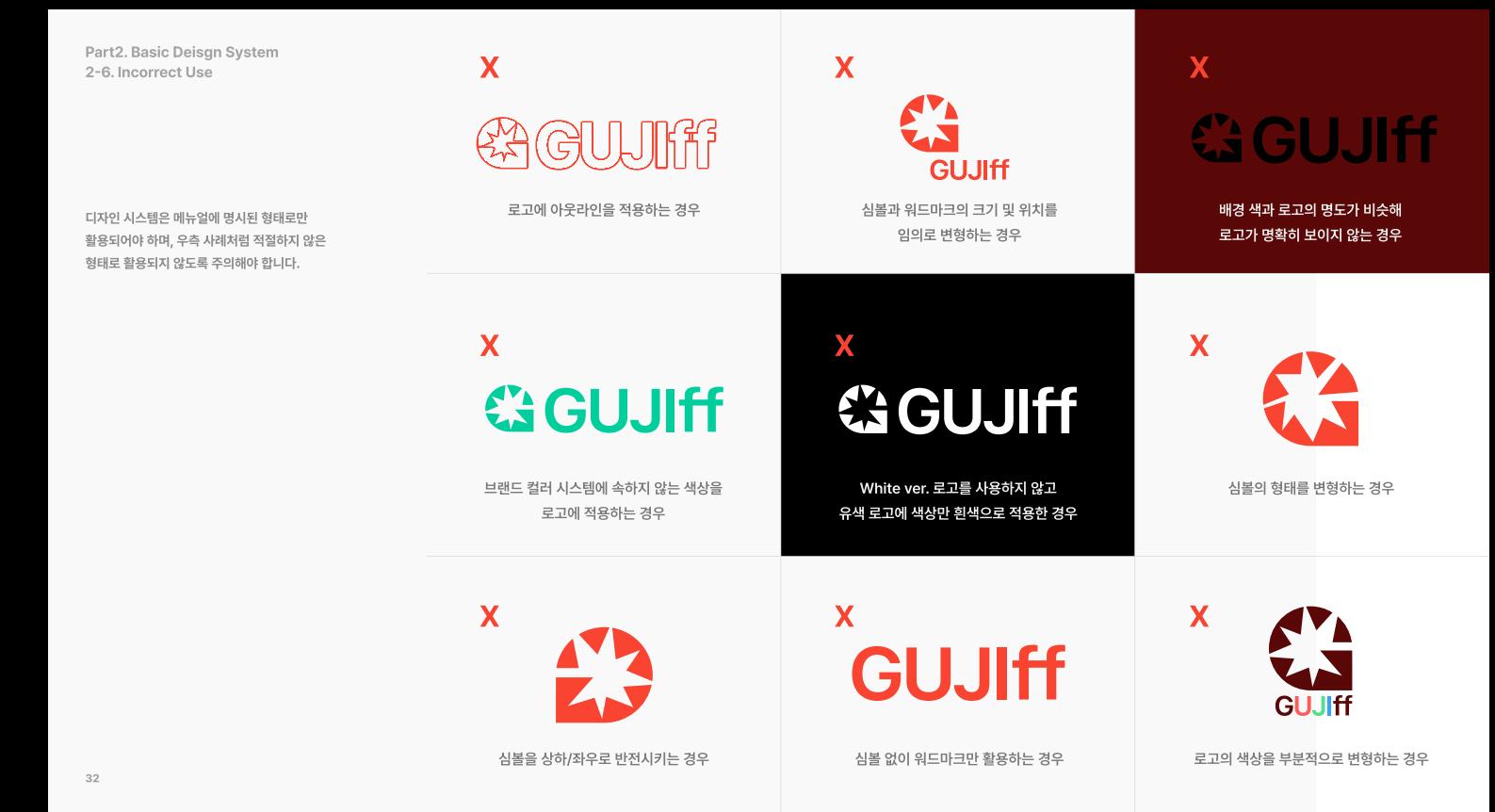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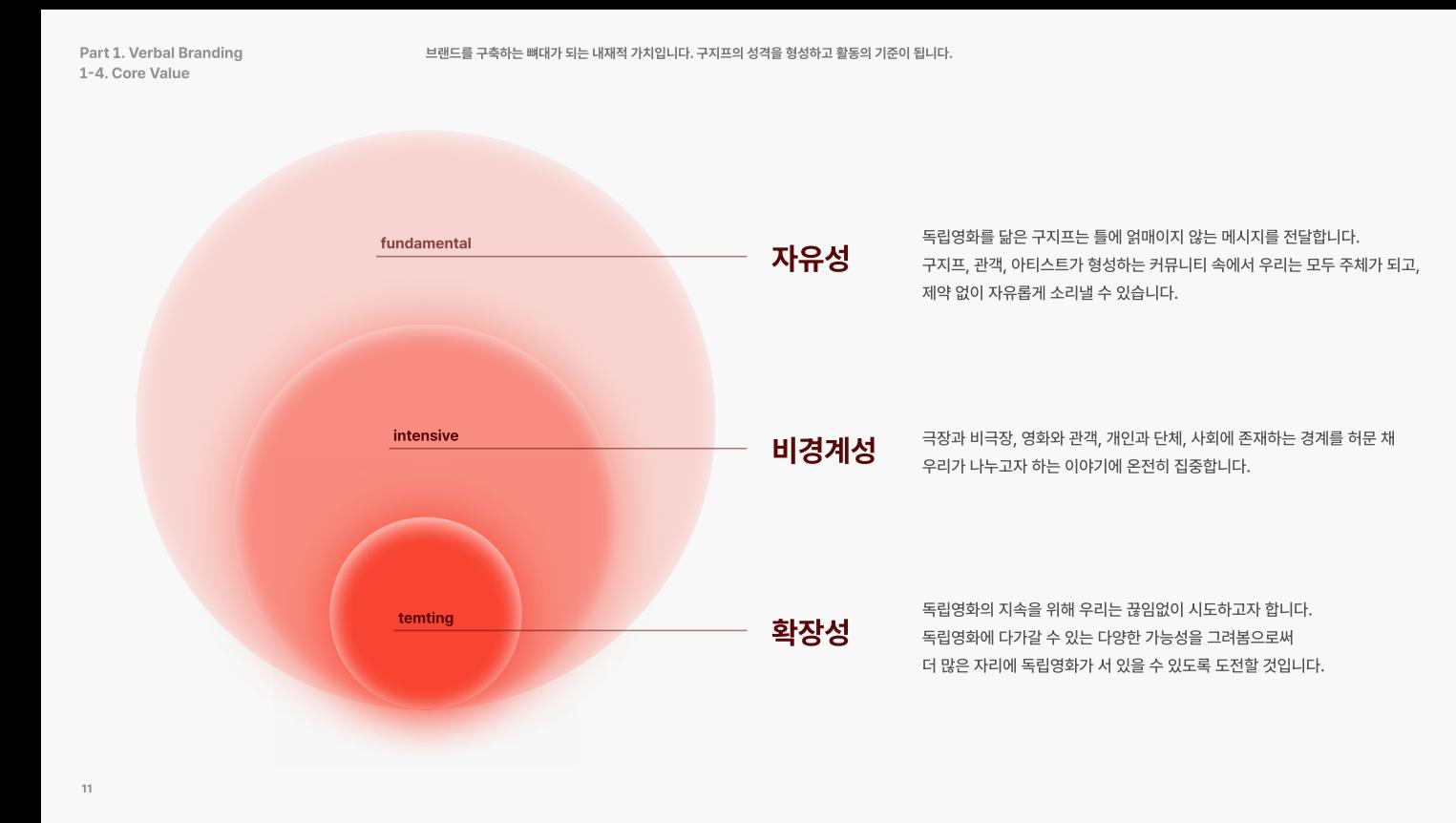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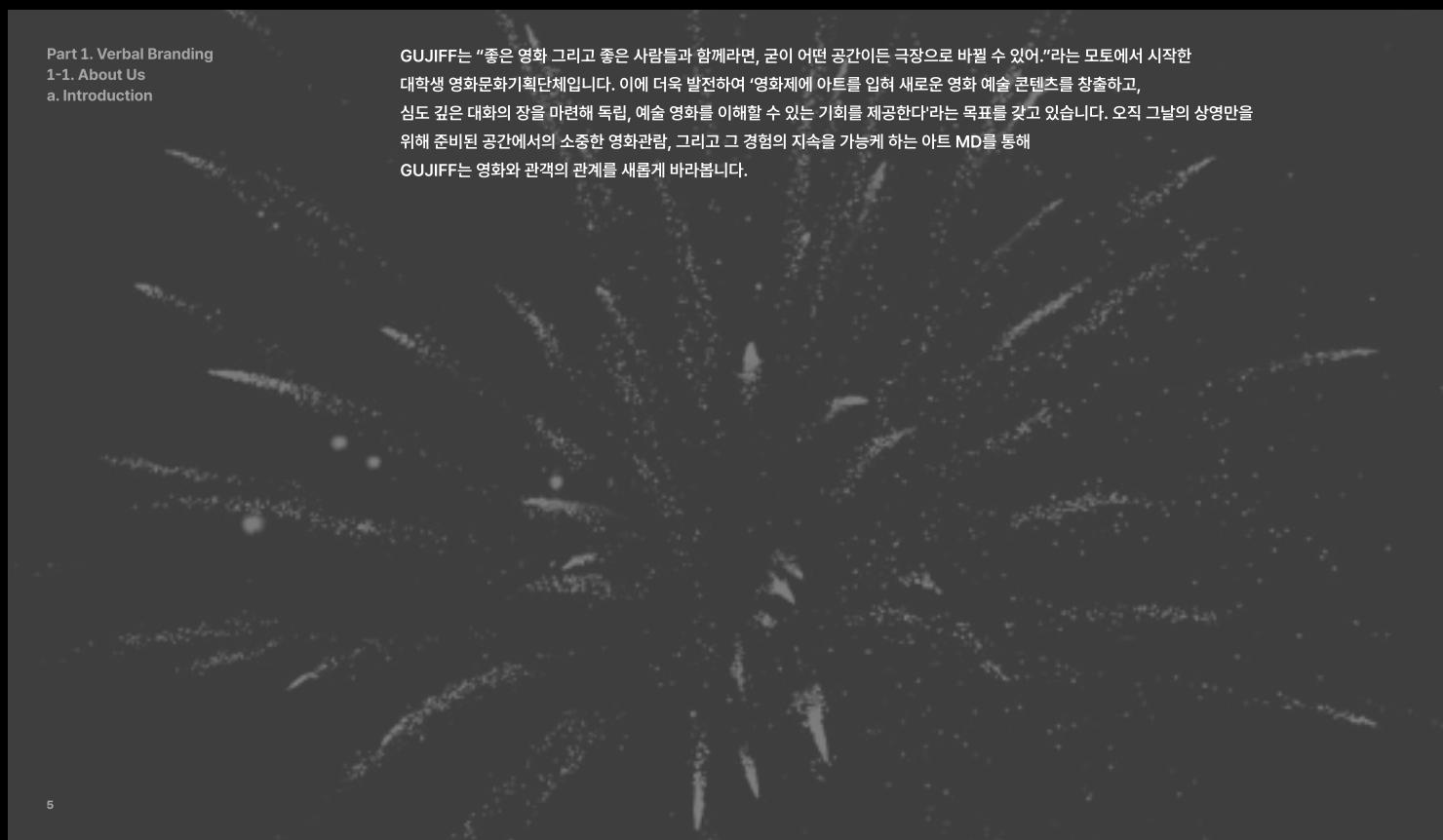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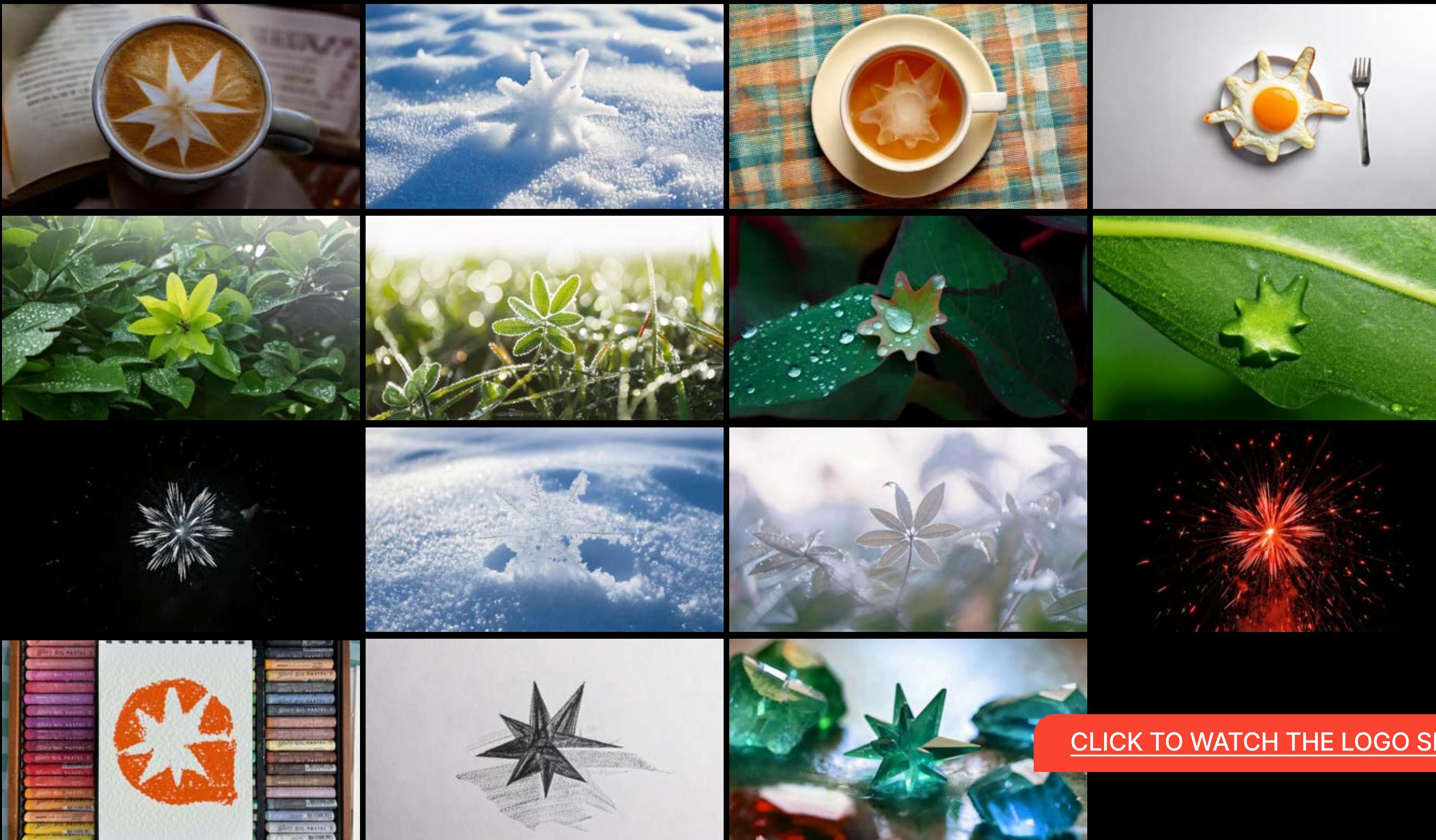


Contents					
PART 1 Verbal Branding		PART 2 Basic Design System		PART 3 Application Design System	
1-1 About Us	4	2-1 Motif	10	3-1 Notion Banner	20
1-2 Slogan	5	2-2 Color System	14	3-2 Teasing Content	21
1-3 Brand Story	6	2-3 Typeface	15	3-3 Content Layout	22
1-4 Values	7	2-4 Graphic Assets	16		
1-5 Vision	8	2-5 Incorrect Use	18		
1-6 Positioning					
1-7 Target					
1-8 Design Concept					
1-9 Mood Board					

Part 1 Verbal Branding

해당 파트는 구지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와 그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지피들의 일관적인 브랜드 이행을 돋고 활동 및 운영의 질감이 역할을 합니다. 구지피들은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브랜드 가치와 원칙을 숙지하고 활용해야 하며, 특히 운영진은 구지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에서 이 메뉴얼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를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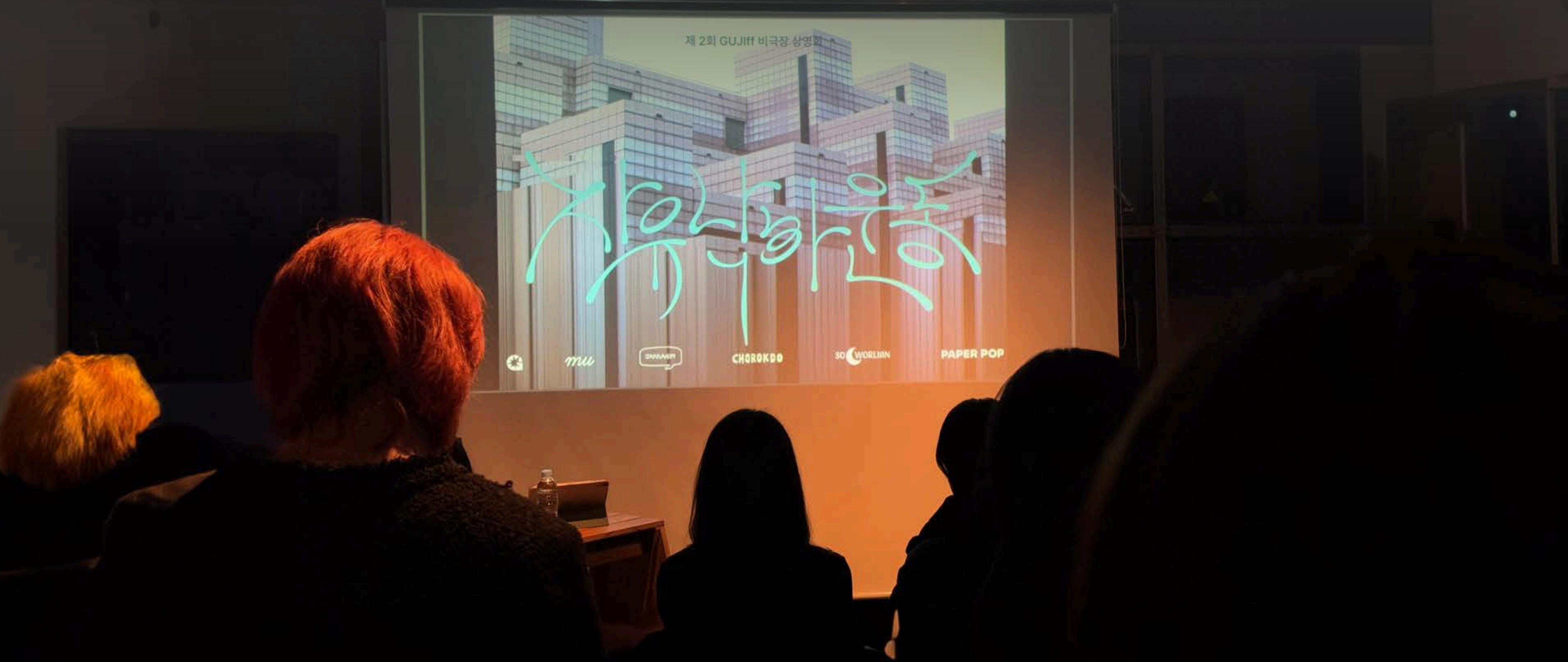
04

자유낙하운동

2024.10.
~ 2025.01.

행사 아이덴티티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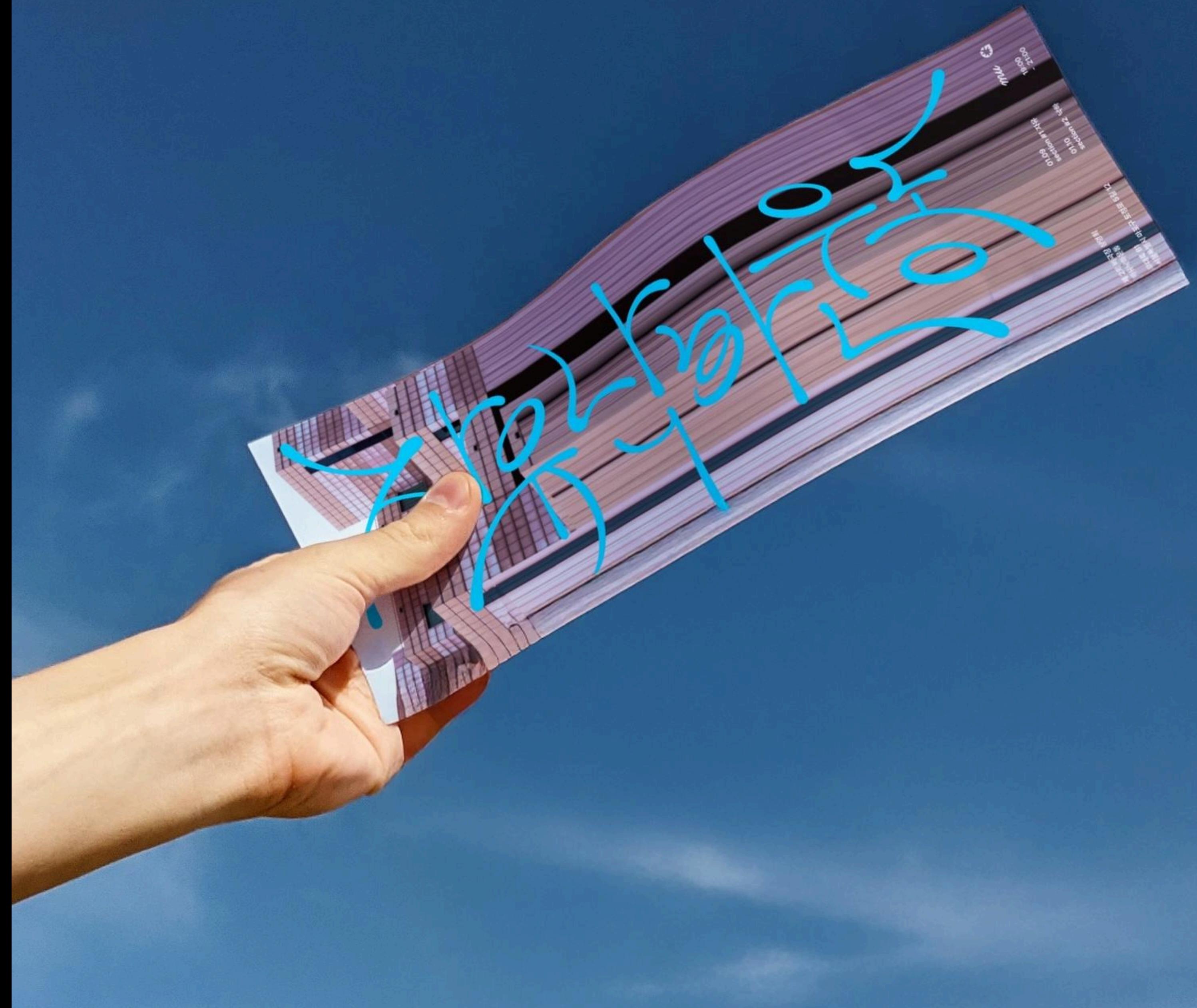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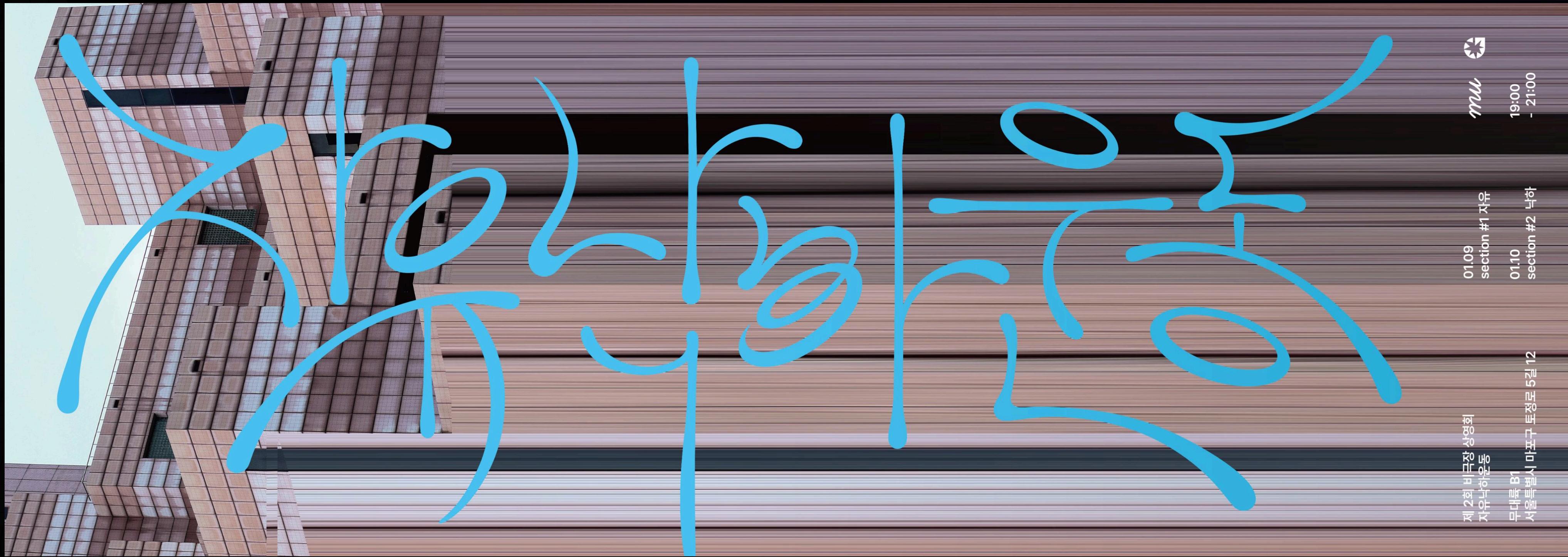
GUJiff 제2회 비극장 상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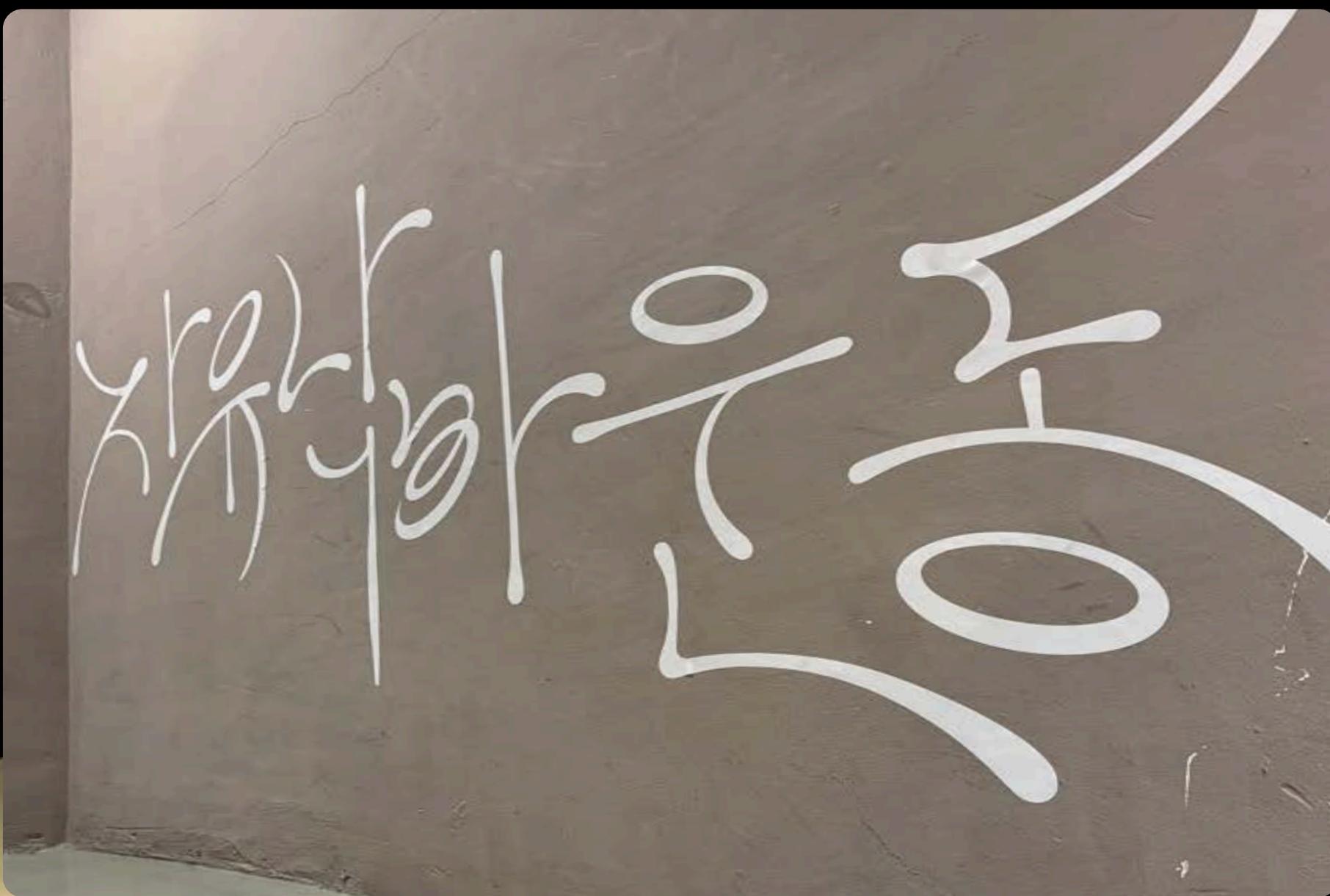
<자유낙하운동> 아이덴티티 디자인

마포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무대륙'에서 24.01.09 -24.01.10.
동안 진행된 대학생 독립영화 상영 기획 단체 GUJiff의 행사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맡았다. 틀에 갇힌 일상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순간을 시각화하고자 했다. '자유로운 낙하'라는 행사는 콘셉트와
극장이 아닌 곳으로 영화를 직접 들고 가는 GUJiff의 모습이
서로 제법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 공통점을 행사의 비주얼로
표현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 수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역동적인 타이틀 레터링과 전형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판형(295*841)을 통해 틀에 박히지 않는 인상을 주려 했다.
수직적으로 외곡된 실사 이미지와 역동적인 타이포그래피가 하나의
레이어로 중첩되며 묘한 이질감과 함께 자유로운 느낌을 전달하도록
의도했다. 만들어진 키비주얼은 각종 콘텐츠와 굿즈 등으로 확장되어
상영회의 전반적인 무드를 형성하는 길잡이가 되었다.



행사 기획 | 김민선 맹채연 박지민 이루세 차현서
행사 아이덴티티 디자인 | 정다원
굿즈 디자인 | 김태희 박소연 이지인 이지윤 황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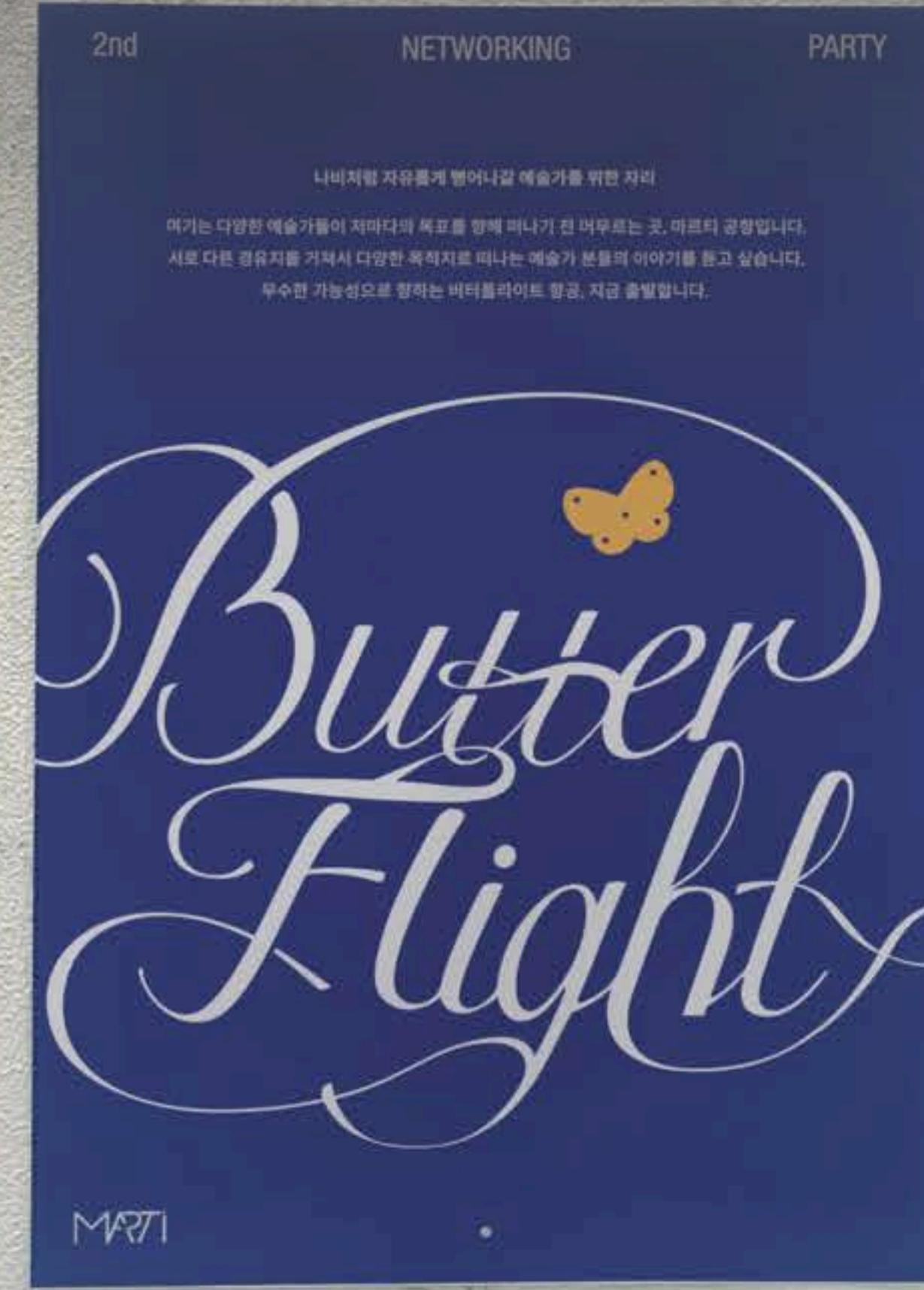
05

Butter Flight

2024.02.
~ 2024.03.

행사 아이덴티티 디자인
판촉물 디자인
행사 진행

p.29



MARTi 제2회 예술가 네트워킹 <Butter Flight> 아이덴티티 디자인

갤러리카페 마르티에서 24.03.16.에 진행된 네트워킹 행사는의 디자인 전반을 맡았다. 꿈을 향한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비행을 응원한다는 행사의 주제를 담아 항공사와 공항이 떠오르는 키비주얼을 제작하고, 각종 어플리케이션에도 해당 콘셉트를 녹여내려 했다. 일반적인 공항의 느낌보다는 '꿈'이라는 키워드가 지닌 낭만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기에 나비, 비행기 창문 등의 곡선적 이미지와 직접 제작한 장식적 레터링을 활용했다. 디자인한 제작물들은 행사장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되며 행사에 참여한 예술가에게 닿았다. 디자인은 물론 기획팀원들과 함께 행사 진행까지 함께함으로써 참여자들과 교류하고 행사를 보다 가까이에서 주관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이다.



행사 기획 | 백하영 전서정

행사 아이덴티티 디자인 | 정다원 손지원

굿즈 디자인 | 정다원 손지원

행사 진행 | 정다원 백하영 손지원 전서정







06

WIFF

Background Option
or
Webcam

Pick a Flame

And Click Anywhere in The WEB SKY!

Contact
© fol.da_ < Click to See My Work Accoun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Visual Communication Design Program
Web Interaction Design Final Project

© 2023. DELIEF ALL RIGHTS RESERVED.

2023.11.
~ 2023.12.

웹 인터랙션 디자인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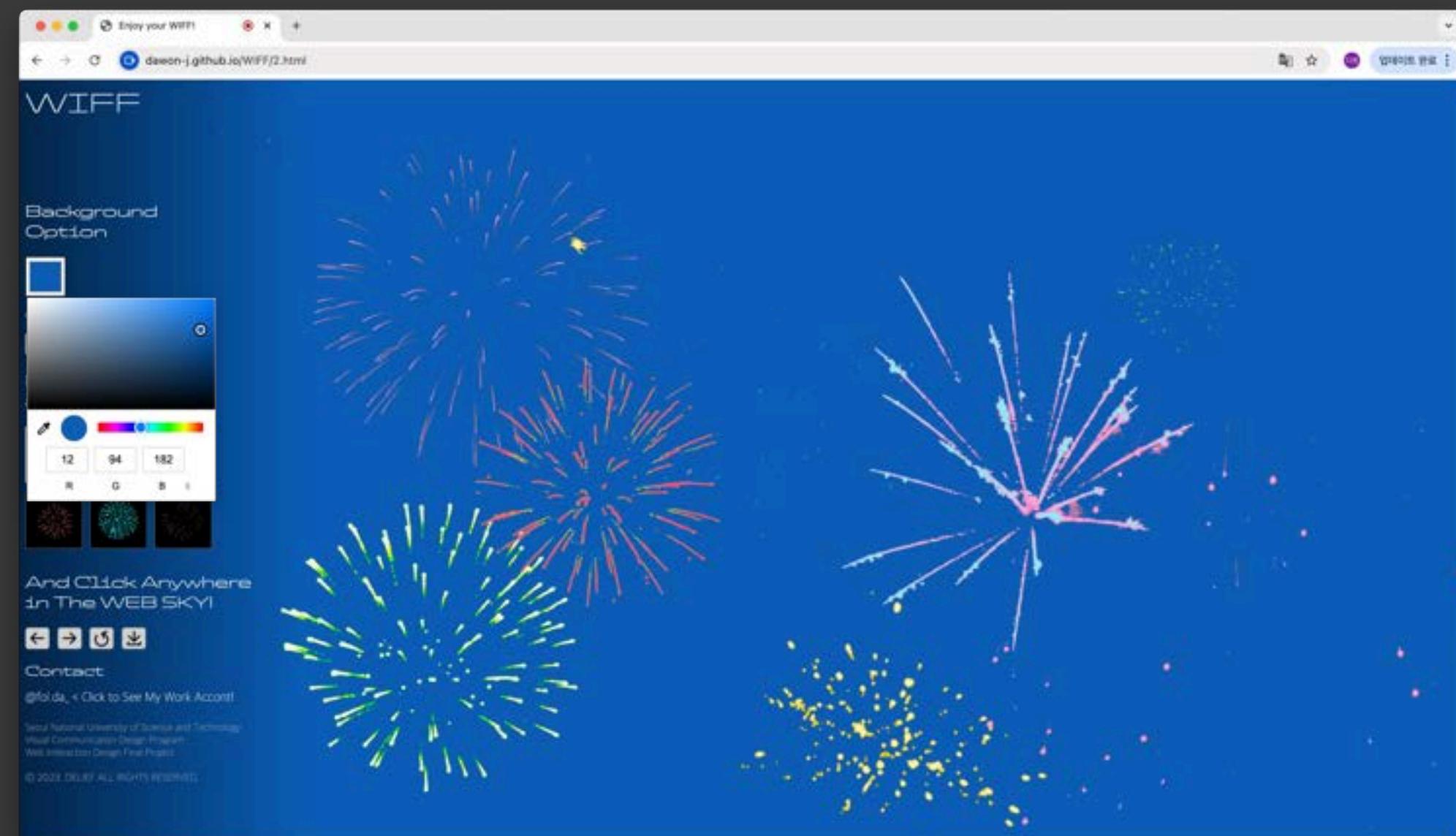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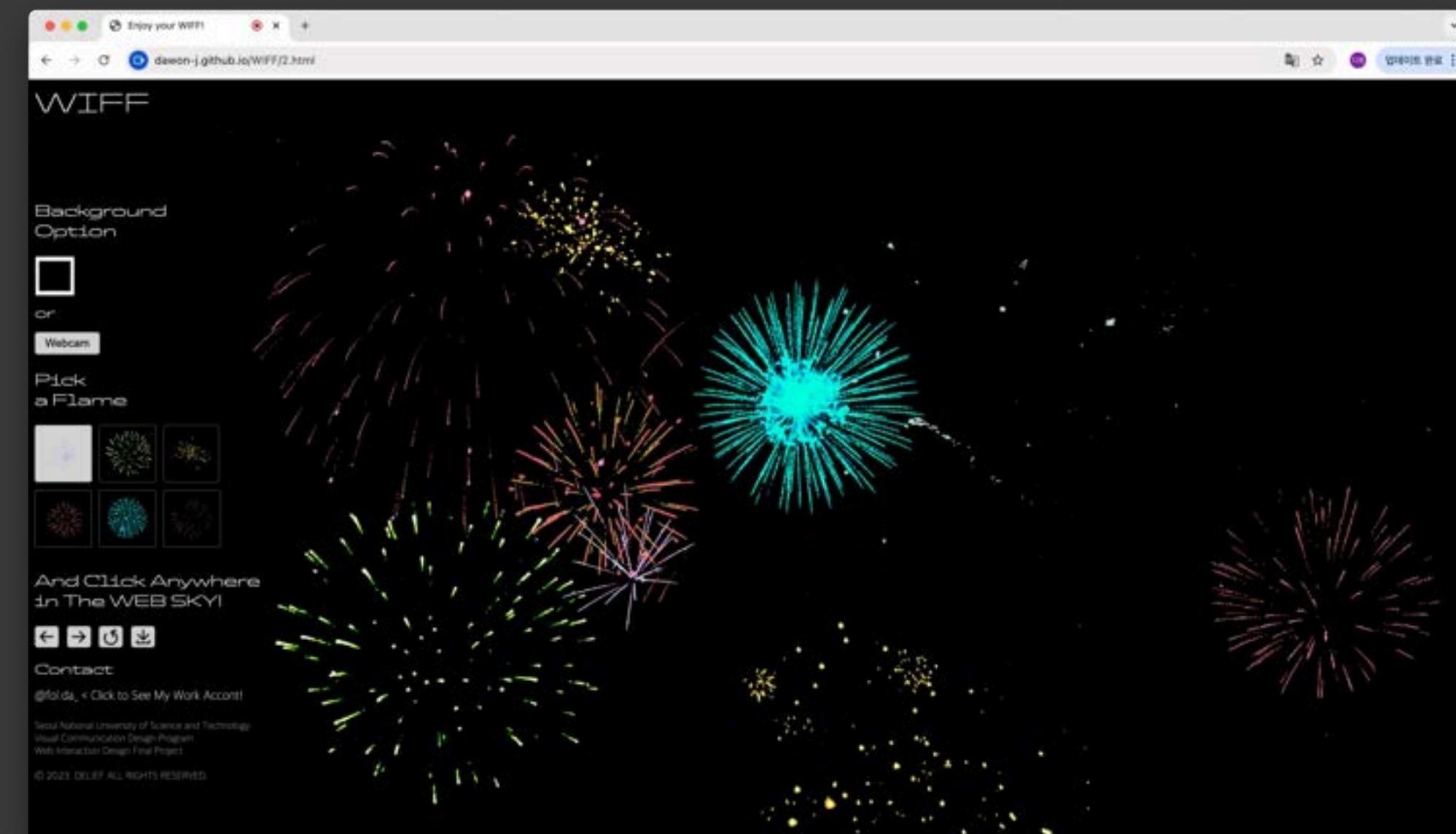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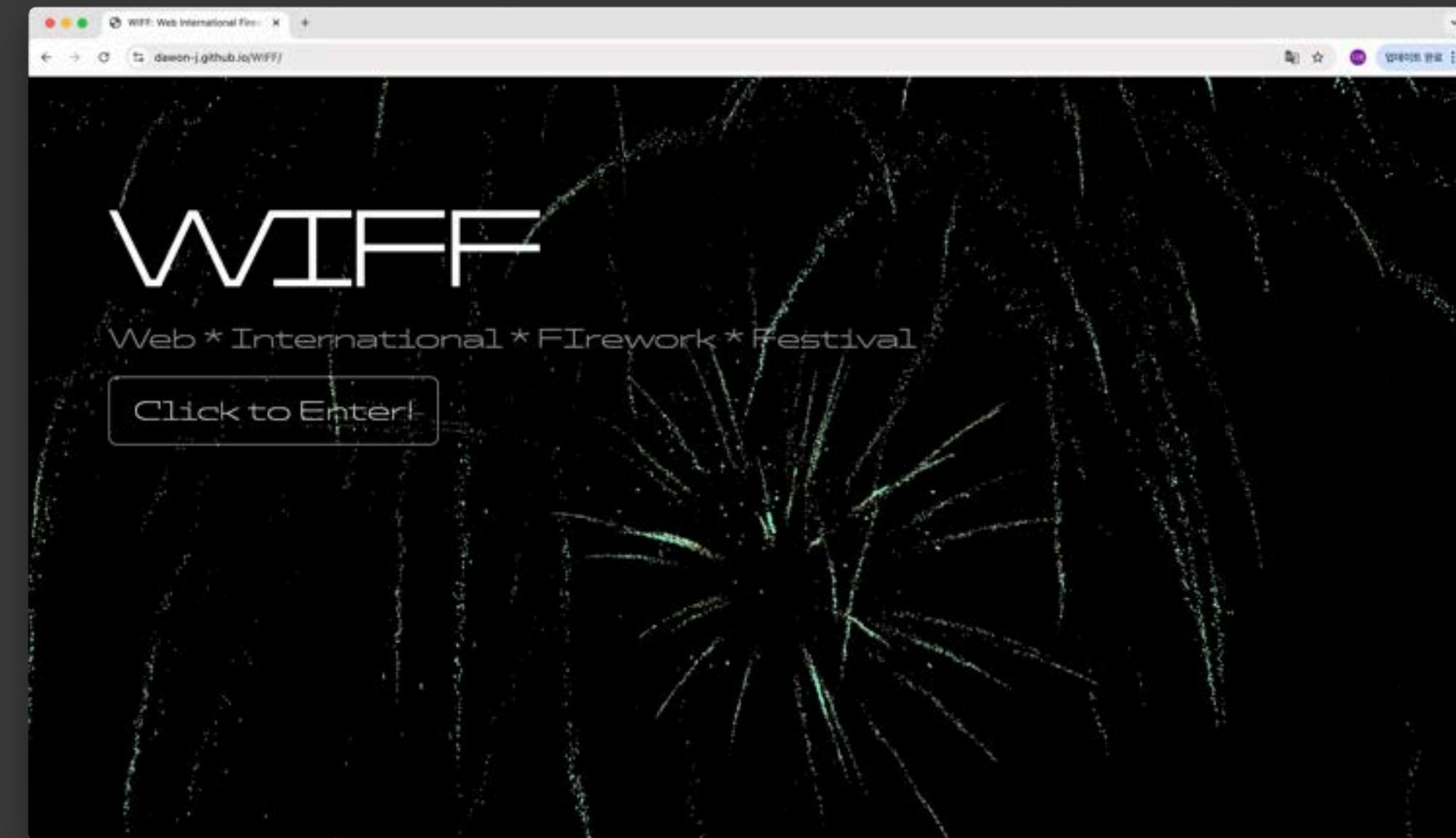
WIFF

인터넷티브 웹 디자인

웹 상에서 개최되는 가상의 국제 불꽃 축제를 디자인했다.
여의도에서 열린 2023 서울 세계 불꽃 축제에 방문 후 직접
여의도까지 가지 않아도 방 안에서 나만의 불꽃 축제를 즐겨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웹이라는 매체를 현실과 구분되는 특별한 공간으로 정의하여
사용자가 '웹 하늘'과 '웹 불꽃'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웹페이지는 pc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우측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CLICK TO VISIT THE WEB SITE!](#)





07

무쓸모도감

2024.11.

편집 디자인

p.37



무슬모동산 프로젝트 08

: 무슬모도감

디자인 소모임 무슬모동산에서 '무슬모도감'을 제작했다.

시아노타입 기법을 활용해 팀원들이 각자 자신과 맵은 식물을
인화하고, 그걸 엮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식물도감이자 백과사전을
만든다. 청사진은 햇빛의 양, 종이의 종류, 용액의 바름 정도 등의
변수에 따라 인화할 때마다 각각 결과물의 생김새가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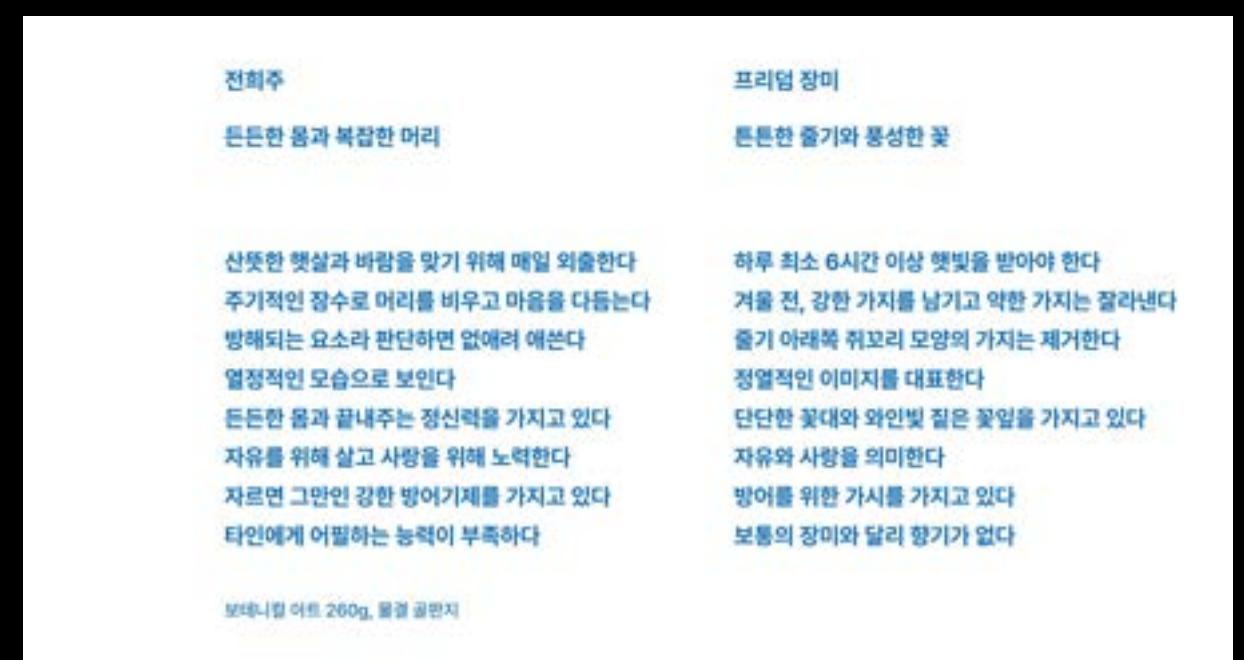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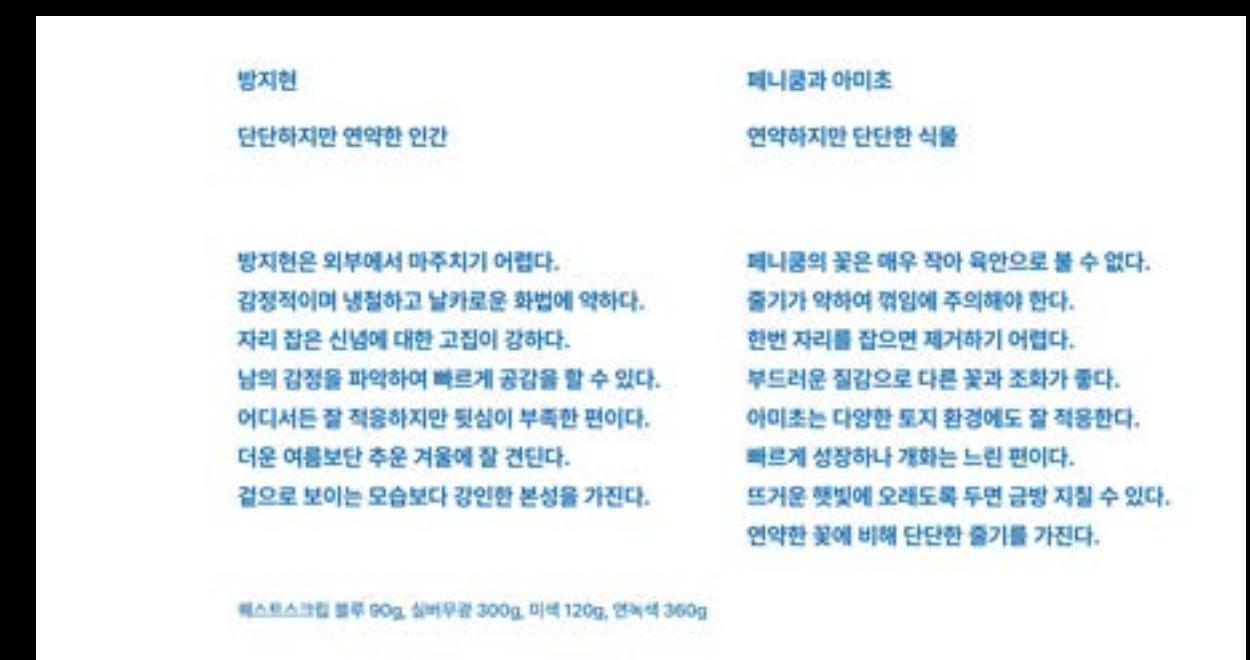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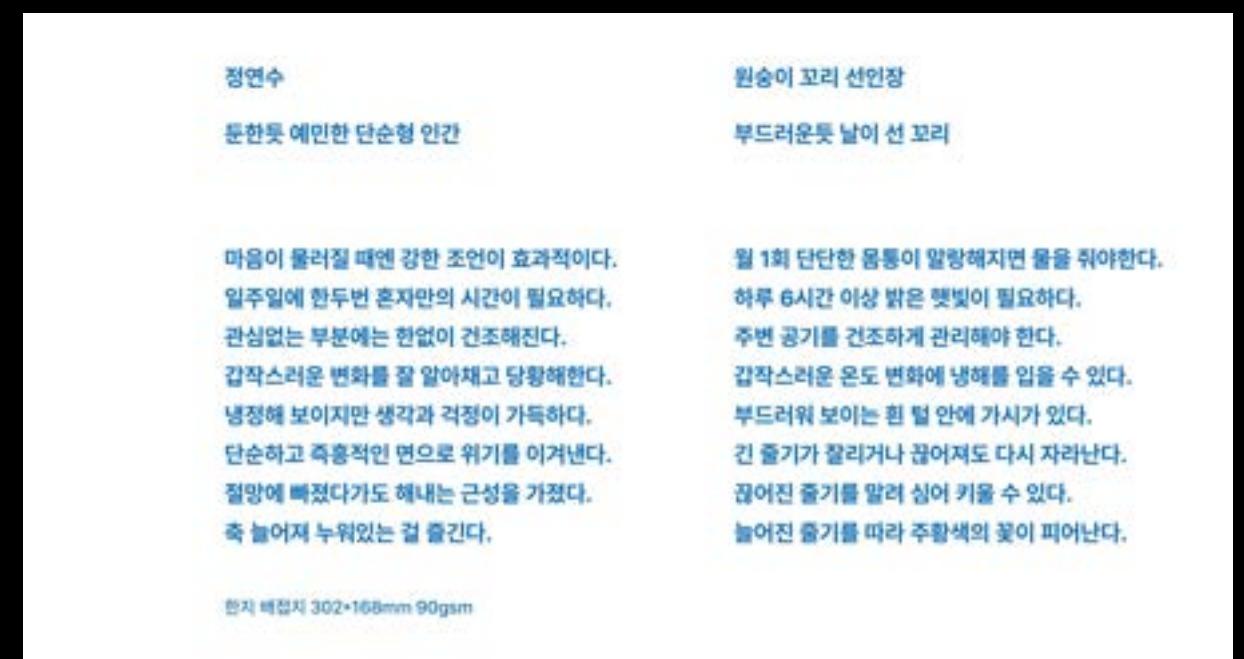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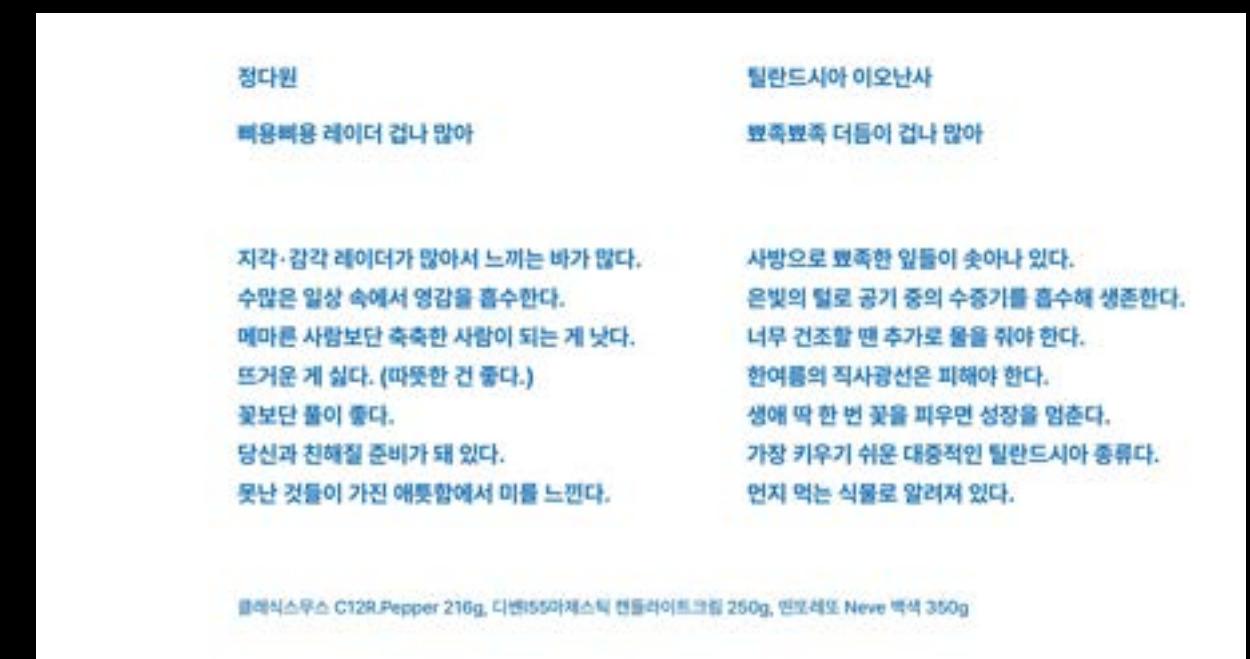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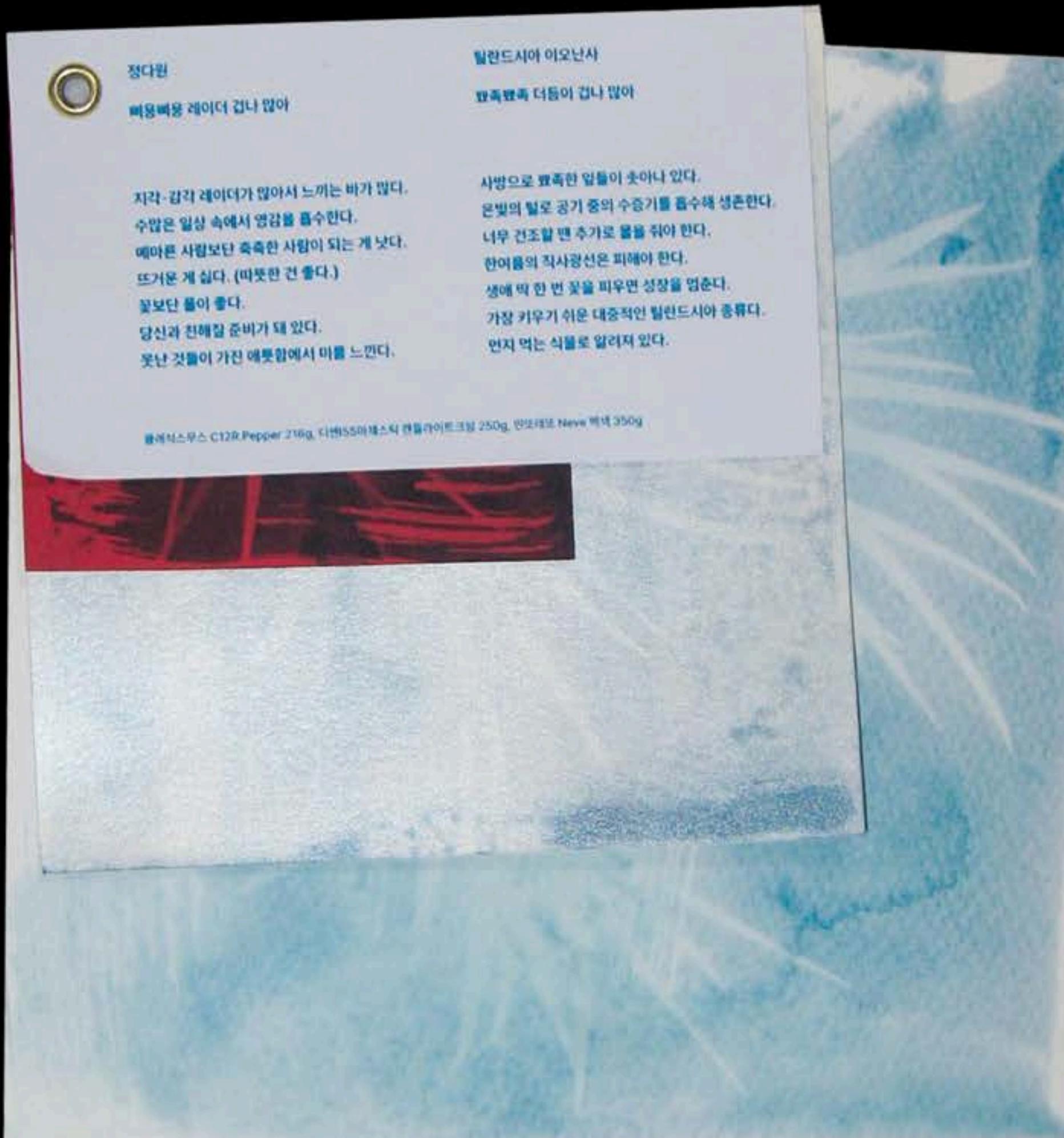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청사진을 스캔 또는 촬영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활용하여 책을 만들었다.

작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은 채 팀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며 책을 만들어나갔다. 흔히 볼 수 있는
택배 박스의 날개를 뜯어내 커버로 사용했고, 박스의 사방에 구멍을
뚫어 아일렛 제본을 했다. 하나의 아일렛에 모든 청사진을
엮어버리지 않은 이유는 네 종류의 식물을 동시에 펼쳐봄으로써
각자의 식물이 어떤 생김새를 가졌는지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의도적으로 순서를 지웠다고 볼 수도 있다.

야매로 만든 우당탕탕 책이라 보는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잘못하면 아일렛이 풍 빠지거나 종이가 찢어져버릴 수도 있다.
여리고 특별한, 세상 단 하나뿐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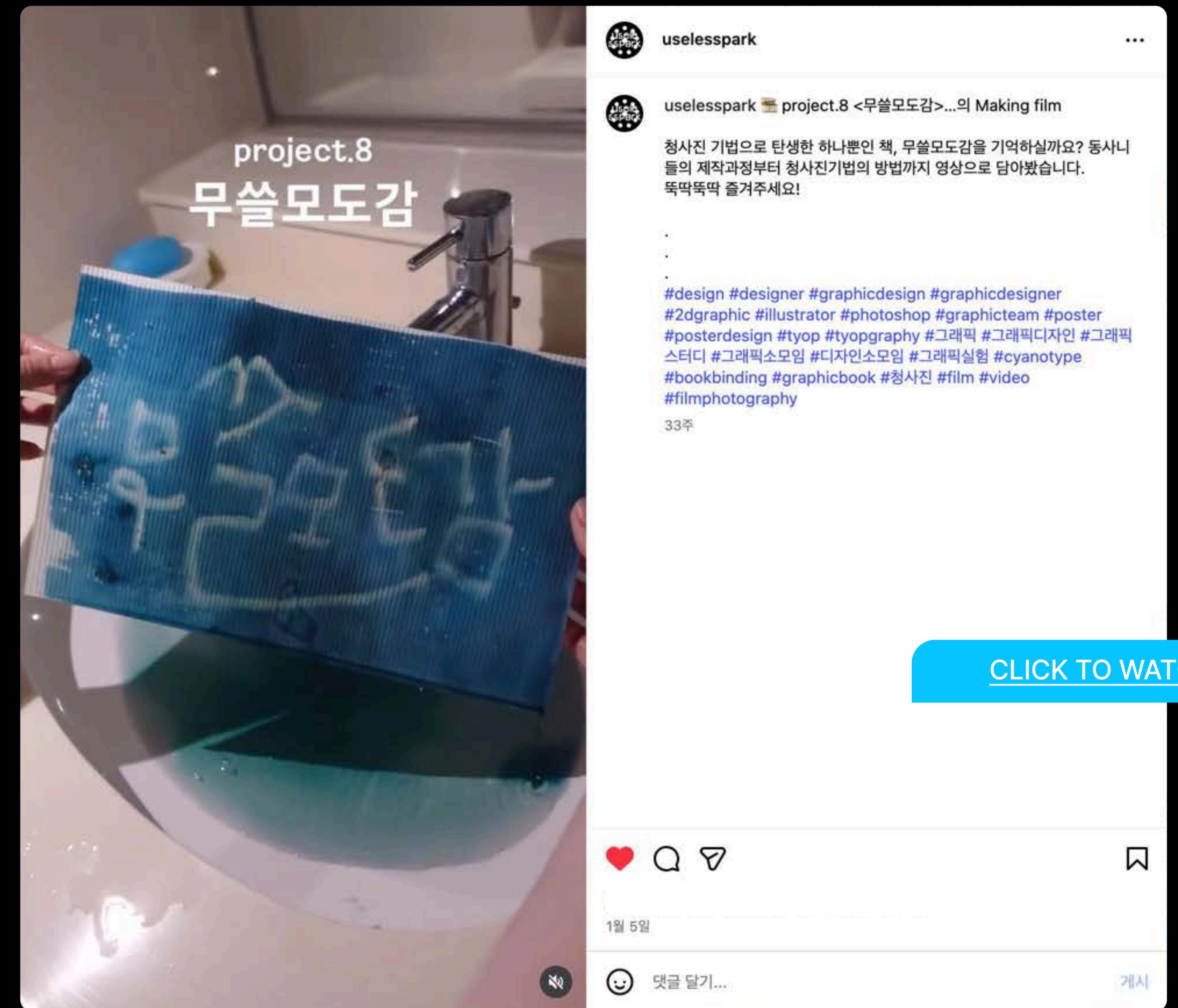












d end

dawon jung

+82 10 5131 6754

jdeliefj@gmail.com

@fol.da_
